

1 실크프린트 패널은 까사알렉시스 2 홍학 모형은 엔클래버링 제품으로 에이치픽스 3 암체어 '레나 Rena'는 어텀 4,5 유리병과 컵은 톱포헤이 제품으로 이노메싸 6 금속 사이드 테이블은 모로소 7 황금 새가 나무에 앉아 있는 모양의 화병은 보에 8 플랜트 스탠드는 펄리빙 제품으로 짐블랑 9 황동 핵사곤 포트는 펄리빙 제품으로 짐블랑 10 커다란 유리 화병은 하우스라벨 11 열대우림의 식물을 표현한 패브릭은 에원AID 12 식물 모양의 독특한 플로어 조명은 르쓰메



Color Magazine vol.33

2018 SUMMER Two Tone Interior Color package

벽면을 페인팅하기로 마음 먹고 나서도 컬러를 고르는 것이 쉽지 않음을 많이 경험해봤을 것이다. 화사한 컬러가 좋지만 어두운 컬러도 한번쯤 시도하고 싶어진다. 무난한 컬러가 좋을 것 같지만 개성있는 컬러도 욕심이 난다. 단 하나의 컬러만 선택하기 어렵다면 두 가지를 동시에 활용해보자. 삼화페인트 컬러디자인센터는 투 톤 컬러 페인팅으로 데커레이션 효과를 강조할 수 있는 팁을 제안한다.

Maison
마aison

Maison
마aison

SAMHWA S/C/D NCS



Two Tone
Interior Color
package

한 공간을 다른 공간처럼 인테리어 컬러 패키지

세로 분할 투 톤 페인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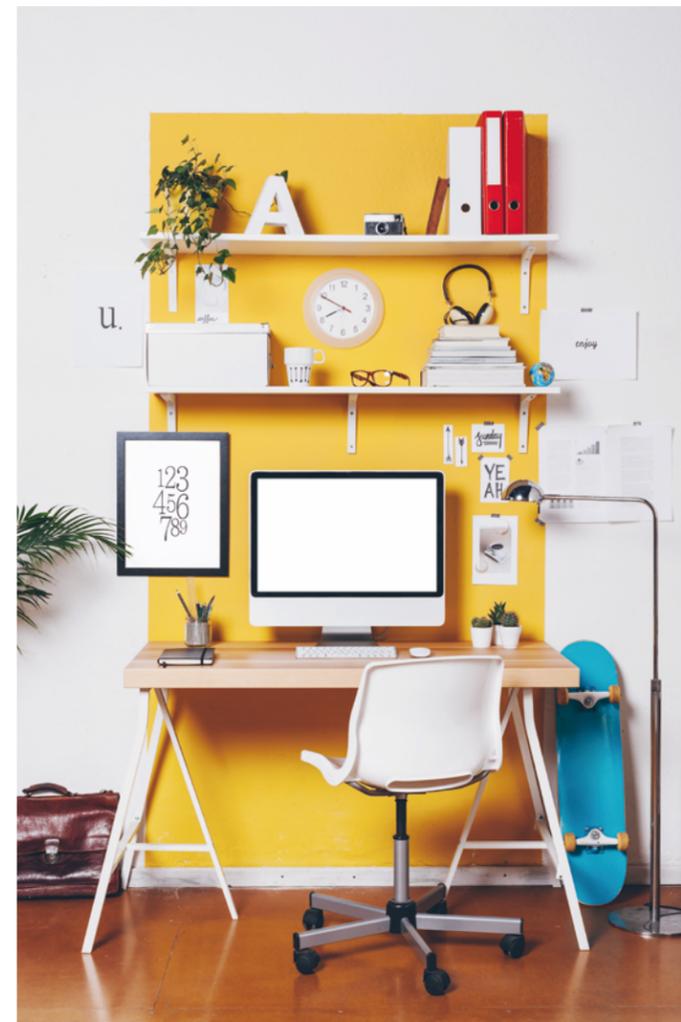
벽면의 일부만 페인팅하거나, 한 벽면에 서로 다른 컬러들을 페인팅해 분위기를 변화시킬 수 있다. 화이트와 유색 컬러를 가로 또는 세로로 분할해 페인팅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세로 분할의 경우, 컬러 콘트라스트가 강한 컬러들로 배색하면 공간을 분할하는 효과를 가진다. 화이트 존에는 식탁을, 블랙 존에는 콘솔과 소파를 놓으면 마치 2개의 다른 공간을 넘나드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



가로 분할 투 톤 페인팅

가로 분할의 경우, 대체로 2개 컬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콘트라스트가 강한 컬러의 조합은 역동적인 분위기를, 톤이 유사한 컬러의 조합은 차분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전체적인 안정감을 위해서 아래 컬러가 위 컬러보다 진한 것이 좋다. 아래 이미지의 코스탈 미스트(Coastal Mist) 컬러와 라이트 모카 브라운(Light Mocha Brown) 컬러는 전체적으로 단정하면서도 밝은 느낌을 준다. 이를 배경으로 다크 컬러의 가구와 패브릭이 모던한 감성을 더한다.





포인트 컬러 페인팅

벽면마다 다른 컬러를 페인팅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다른 면들은 화이트로 남겨두고, 한 개 벽면에만 컬러를 적용해 포인트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액자, 소품 등의 데커레이션으로 컬러 벽면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가구, 러그, 패브릭 스타일링에는 컬러 벽면과 동일한 컬러를 고르기보다는 유사한 톤의 반대색을 포인트 컬러로 선택하도록 한다. 샤프트뢰즈(Chartreuse)로 페인팅한 공간에는 민트 컬러의 소품과 깨끗한 화이트 컬러의 조화로 상쾌한 청량감을 자아냈다. 핑크 펀치(Pink Punch)로 페인팅한 벽면에는 식물의 그린과 화병의 블루를 매치해 모던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했다.



다양한 아이디어로 벽면 꾸미기

벽면 전체에 일정한 톤을 페인팅하는 것만이 벽면 꾸미기의 전부는 아니다. 컬러 테이플을 이용해 상상력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원하는 형상을 그릴 수도 있고 단순하게 선으로만 데커레이션 효과를 낼 수 있다. 사진을 액자에 넣지 않고 테이플을 노출되게 부착해 벽을 장식하는 이들도 많다. 소품의 효과를 내기도 한다. 선반은 수납겸 데커레이션을 위한 실용적 아이템이다. 컴퓨터 책상이나 책장 등 특정 공간에 컬러로 블로킹 효과를 주면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컬러와 소품을 함께 사용하면 더욱 생동감 있는 벽면이 완성된다.

건설사들의 Identity 강화 변화하는 아파트 익스테리어 트렌드

삼화페인트 컬러디자인센터는 매년 전국 아파트 재도장 현장에서 자주 활용되고, 고객이 선호하는 컬러를 'CS Color Wheel'과 'NCS Triangle'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컬러와 디자인 지원 시 향후 방향성을 파악하고, 나아가 페인트 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411 / (주)호반건설 / 2008.06 입주 / 총 308세대 / 총 20층 / 판상형

최근 건설업계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단연 원가절감이다. 고가의 마감재보다는 합리적인 가격의 페인트로 그래픽 디자인을 적용하여 경제성과 차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브랜드마다 고유의 컬러를 운영하거나 수많은 면을 분할하고 조합해 브랜드만의 이야기를 담은 수도권 지역의 현장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성물푸레마을 호반베르디움 8단지

호반베르디움은 블루 컬러를 그라데이션으로 배색하여 풍부한 색구성을 보여주며 심플한 패턴으로 세련된 느낌을 강조한 현장이다. 세로 형태 그래픽으로 매스가 수직 방향으로 상승되어 보이는 효과를 전달하고 밝은 고명도의 무채색을 주·보조 색상으로 활용하였으며 차별하면서 중채도의 블루를 적용하여 청량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166 / (주)태영 / 1993.11 입주 / 총 648세대 / 총 9개 동 / 총 25층 / 판상형

정자동마을 태영데시앙1차

일상 속에 많이 스며들어 친숙한 피에트 몬드리안 작품을 모티브로 재도장에 알맞게 단순화하여 표현한 그래픽이다. 따듯한 느낌의 Y 계열 컬러를 주·보조 색상으로 활용하고, YR 계열의 오렌지 옐로우 강조색 유사색상을 배색하여 역동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했다.

기존 아파트 외벽컬러는 차분한 느낌의 브라운 계열을 많이 형성했지만 최근의 특징이라면 아파트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던 블루와 채도가 높은 레드나 오렌지가 새롭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높아진 생활수준에 따라 아파트의 고급화와 차별화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창출되는 요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선도적인 실험은 계속될 것이다.

